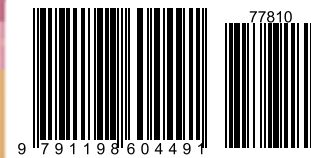


페트병은 쓰레기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요?

플라스틱 '핑크버블'은 스스로를
'다시 태어날 준비가 된 특별한 존재'라고 믿었어요.
페트병 분리수거함에서 시작된 핑크버블의 모험은,
효성티앤씨의 '리젠(**regen**)' 공장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핑크버블과 함께 페트병의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고,
지구를 지키는 재활용의 여정을 떠나볼까요?



가격 19,000원

핑크버블의 재탄생

HYOSUNG TNC X OHMYEARTH

HYOSUNG TNC X OHMYEARTH

핑크버블의 재탄생

글·그림 오마이어스



QR코드를 찍으시면 AR동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 소개



핑크버블

한때 사람들의 편리함을 위해 태어난 플라스틱.
한번 쓰고 버려진 핑크버블은 새로운 모습을 꿈꿨어요.
이제, 버려진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만든
효성티앤씨의 리사이클 실 '리젠 폴리에스터'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글·그림 오마이어스

오마이어스(Oh my earth)는 기후·환경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위기에 처한 지구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효성티앤씨(주)

효성티앤씨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일상에 꼭 필요한 지속가능한 섬유 소재를 만드는 글로벌 섬유 기업입니다.

핑크버블의 재탄생

글·그림 오마이어스



핑크버블의 재탄생

글·그림 오마이어스

퍼낸곳 오마이어스 출판등록 제2023-000112

주소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2-1 삼우빌딩 2층 tel. 02) 2268-0422

ISBN 979-11-986044-9-1

Copyright © 2025, Oh My Earth Co.,Ltd.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오마이어스에게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사전동의 없이 무단 복사, 수정,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도시 한복판, 햇빛이 반짝이는 날

공원 옆 분리수거함 앞에는 빈 페트병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이제 내 차례야!” 투명한 페트병 하나가 말했어요.





“우리는 새로 태어날 거야!”
페트병들이 툭툭툭 분리수거 통 안으로 하나씩 들어갔어요.
그중 반짝이는 특별한 친구, 핑크버블이 있었죠.

핑크버블은 싱글병글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다시 사람들과 함께할 거야. 이제 새로운 여행 시작이야!”
다른 병들도 기대에 찬 눈빛으로 핑크버블을 바라봤어요.

와글

와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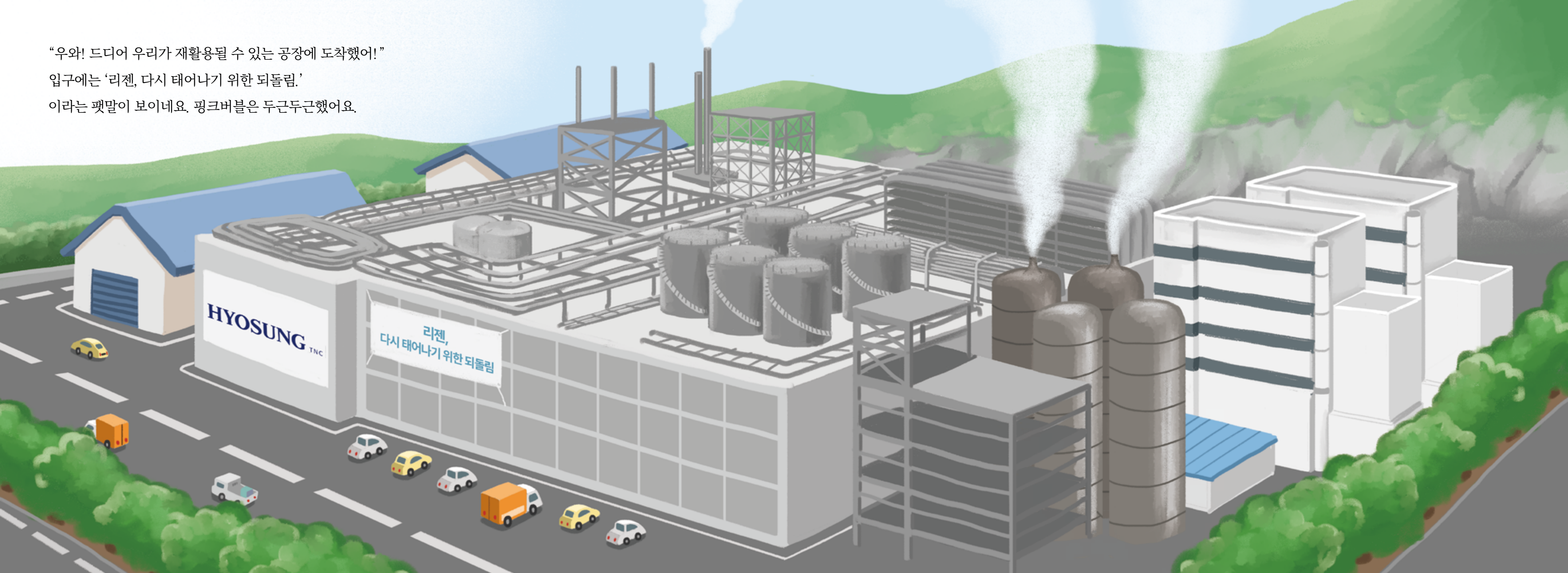
분리수거 통에 있는 페트병들은 커다란 트럭에 실려 ‘효성티앤씨 공장’ 으로 이동했어요.
핑크버블은 들뜬 마음으로 밖을 내다보았어요.



“우와! 드디어 우리가 재활용될 수 있는 공장에 도착했어!”

입구에는 ‘리젠, 다시 태어나기 위한 되돌림.’

이라는 팻말이 보이네요. 핑크버블은 두근두근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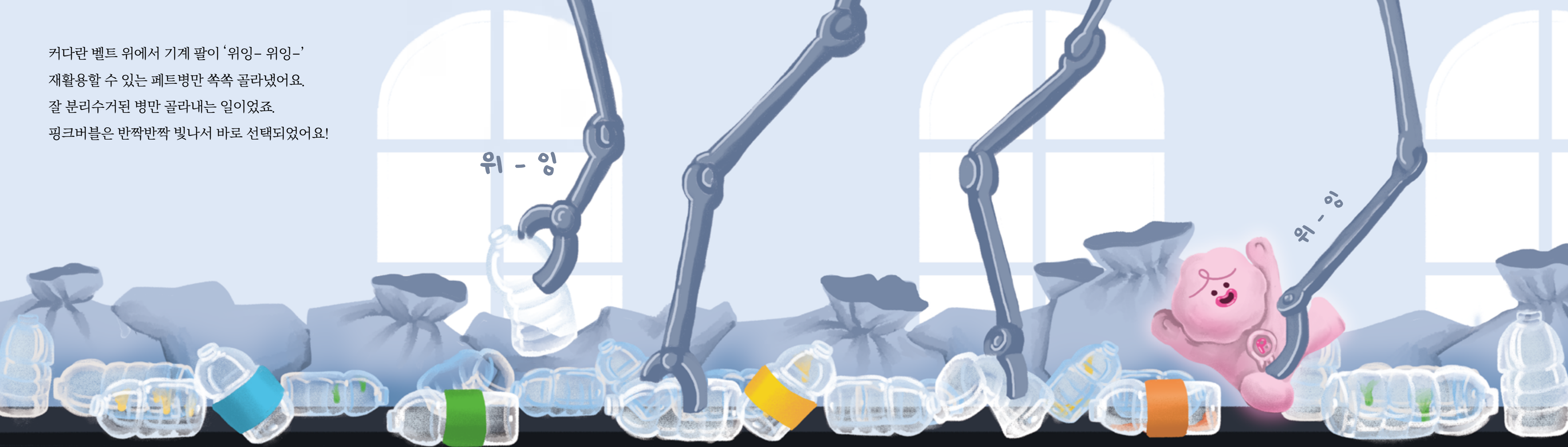
드디어 효성티앤씨 공장에 도착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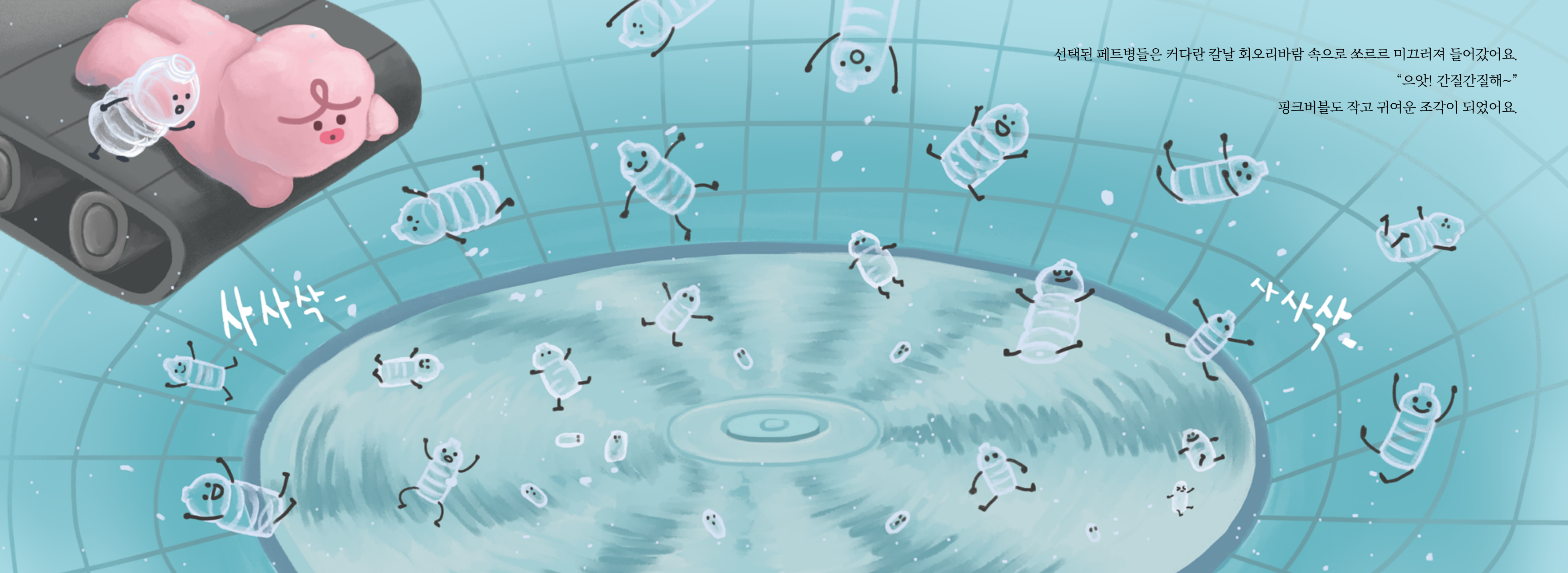
공장 직원들은 먼저 수거된 페트병을 한곳에 옮기며 말했어요.

“자, 페트병을 다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니까 재활용 가능한 친구들을 빨리 골라내 보자.”



커다란 벨트 위에서 기계 팔이 ‘위잉- 위잉-’
재활용할 수 있는 페트병만 쪽쪽 골라냈어요.
잘 분리수거된 병만 골라내는 일이었죠.
핑크버블은 반짝반짝 빛나서 바로 선택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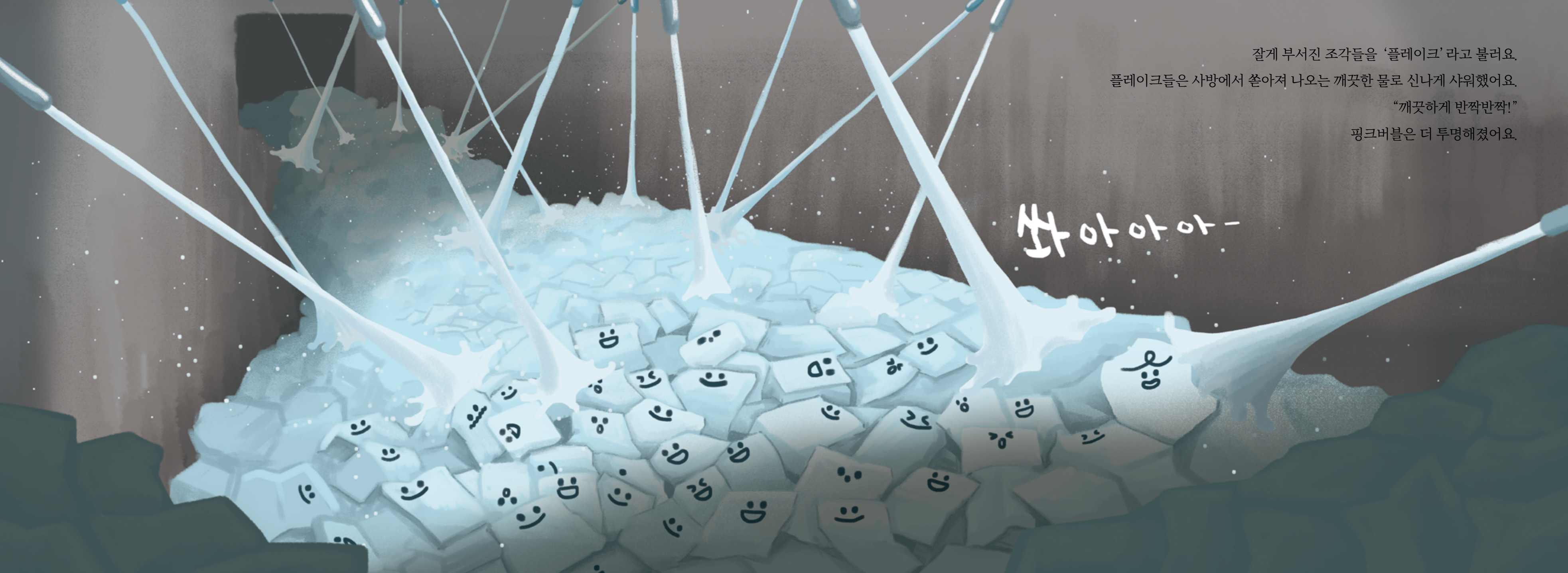




선택된 페트병들은 커다란 칼날 회오리바람 속으로 쏘르르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으앗! 간질간질해~”

핑크버블도 작고 귀여운 조각이 되었어요.



잘게 부서진 조각들을 ‘플레이크’라고 불러요.
플레이크들은 사방에서 쏟아져 나오는 깨끗한 물로 신나게 샤워했어요.
“깨끗하게 반짝반짝!”
핑크버블은 더 투명해졌어요.

샤아아아-

깨끗한 플레이크는 열로 녹여 ‘재활용 칩’으로 만들어져요.
딱딱한 별사탕처럼 생긴 조각들이에요.
핑크버블은 궁금해하며 말했어요.
“나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러 가게 될까?”





3:6

재활용 칩은 거대한 기계 속을 통과해 ‘리젠 리사이클 실’로 길게 뽑아졌어요.
실들은 부드러운 구름처럼 길게 이어졌어요.
“내가 실이 되다니! 진짜 신기해!”

이제 염색 목욕할 시간!

핑크버블은 자신만의 특별한 핑크색으로 물들자,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나는 이제 쓰레기가 아니야.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는 옷이 될 거야!”

핑크버블은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어요.



핑크버블은 패션 디자이너의 손을 거쳐 멋진 티셔츠로 탄생 되었어요.
핑크버블 티셔츠는 웃으며 말했어요.
“우와! 난 이제 다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사람들은 페트병을 재활용한 리젠 옷을 입고 플로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있어요.
핑크버블은 미소 지었어요.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미래야!”



햇살 가득한 도시 속 공원,
공원에 버려진 작은 페트병 하나가 핑크버블을 보고 말하고 있어요.

“나도 핑크버블처럼 멋지게
다시 태어나고 싶어!”



리젠 폴리에스터(regen Polyester)

효성티앤씨의 '리젠 폴리에스터(regen Polyester)'는 버려진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만든 리사이클 실입니다.

